

 전라북도의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소 속	교육위원회
		위원장	양용모 의원
	2014년 8월 21일(목)-2p (사진있습니다)	담 당	최두현정책연구원
		연락처	063)280-4490

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원장, 그린스쿨 사업현장 방문
- 학생들에게 좋은 사업, 사업과정 지원 강화 필요

- 전라북도의회 양용모(전주8) 교육위원장과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노후 학교건물의 친환경적인 리모델링 사업인 ‘그린스쿨’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현장조사 활동을 펼쳤다.
- 양용모 위원장과 교사, 학부모 등 20여명은 지난 20일 전주솔빛중 그린스쿨 사업시행에 앞서 그린스쿨 공사를 완료한 남원중 학교와 전주기린중학교를 찾았다. 지난 1981년 개교한 전주솔빛중은 2014년 그린스쿨 리모델링 사업 학교로 지정되었다.
- 그린스쿨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전북교육청이 5:5비율로 해당 학교에 5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다. 2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건물을 에너지절감 및 환경친화적인 기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육환경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.
- 현장을 찾은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교사들은 “편백나무

화장실과 수납장, 탈의실 등이 설치되고, LED조명으로 전기료 절감, 이중단열, 빗물이용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로 탈바꿈 되어 보기 좋다” 고 평가했다.

○ 양용모 위원장도 “각종 인권친화적인 시설과 내진설계, 친환경 자재 등이 들어간 교실이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느낌을 받았다” 며 “향후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” 고 밝혔다.

○ 양위원장은 그러나 “각 학교별로 사업과정에서 자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,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사가 추가되는 모습 등이 나타났다” 며 “체계적인 그린스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전문적인 지원과 철저한 설계감독, 사업과정에서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” 고 주문했다.

○ 전라북도 그린스쿨 사업은 지난 2013년까지 14개 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투자된 예산은 416억 원이다.